

SK케미칼, PET 해외법인 매각

수익성 악화로 Indorama에 ... SK유로켄 510억원에 SK크리스 170억원

SK케미칼이 비주력 해외법인 2곳을 매각했다.

SK케미칼은 폴란드의 SK유로켄과 인도네시아의 SK크리스를 타이의 Indorama 그룹에 팔았다고 12월9일 발표했다.

매각금액은 SK유로켄이 510억원, SK크리스가 170억원 정도로 알려졌다.

양사는 PET(Polyethylene) 수지와 폴리에스터(Polyester) 섬유를 15만톤 가량 생산하고 있다.

SK케미칼 관계자는 “부가가치가 높은 친환경 소재 개발과 백신 개발 등 생명과학 부문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수익률이 낮고 비용 부담이 큰 해외 사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SK유로켄은 2002년, SK크리스는 1991년 설립됐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화학저널 2010/12/09>